

## 美교계 · 정계 “국가 기도의 날은 역사적 유산”

미국 보수 교계와 정계가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함께 맞서고 있다. 이들은 국가 기도의 날이 건국 초기부터 전해져 온 미국의 역사적 유산으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국가 기도의 날 명예의장인 빌리 그레함전도협회, 사마리아인의지갑 회장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폭스뉴스, ABC 방송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 기도의 날은 건국 초기인 대륙의회 때부터 모든 주가 하루를 정해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작된 것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주 미국 위스콘신 주 법원의 바바라 크랩 판사는 “정부에 의해 특정 종교 행위가 지지되고 권고되고 있는 국가 기도의 날은 정교 분리와 개인의 종교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국가 기도의 날 폐지를 주장하며 2008년 10월 당시 정부와 국가 기도의 날 태스크 포스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수 교계와 정계는 판결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그레함 목사는 또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고난의 때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 기도의 날에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며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필요로 하는 지금 국가 기도의 날이 나쁜 것이거나 나라의 기를 위협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 위헌 판결 비판... 오바마 대통령은 항소

“이는 미국의 역사적 유산의 중대한 일부”라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KCC '워싱턴 핫불대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KCC 간사들 (오른쪽에서 두번째 KCC 대표 간사 손인식 목사).

## “기도와 법안 통과로 북한 동포 돕자”

### KCC, 7월 13일부터 워싱턴서 핫불대회 개최

북한동포의 해방과 탈북자 구출을 위해 결성된 KCC(한국교회연합, 전국대표간사 손인식 목사)가 북한 동포를 위한 ‘워싱턴 핫불 대회’를 7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한다.

KCC측은 이번 대회를 위해 4일 오전 10시 LA 힐튼 호텔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

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북한 인권 문제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교회 대표단, 해외 한인교회 대표단, 미국 주류교회 대표단, 국제 NGO 대표단 등이 참석해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고 북한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탈북자 고아 입양’ 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 상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KCC대표 간사 손인식 목사는 “현재 북한은 김정일 위원의 건강 악화 이후 권력 세습의 불안과 화해개혁 이후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 후 미

국 정부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이 때 우리들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동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11월 4일, 5일에는 KCC, 한기총, 탈북자교회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제2차 핫불대회가 영락교회 혹은 서울교회에서 개최된다. <이태근 기자>

미주 한인교단들의 2010년 정기총회가 5월 중 잇따라 개최된다. 총회는 총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고 목사안수식이나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해의 중요한 연례행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총회장 이재영 목사)는 제 32회 정기총회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라스베가스 사우스포인트호텔에서 개최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 미주 한인교단 정기총회 5월 중 잇따라 개최

### KAPC 펜실베이니아 포코너, KPCA 서울 명성교회서 총회

번 총회에는 개회예배, 사무총회, 아침기도회 등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 예장합동총회장 서정배 목사 등 사절단이 참석하며 서정배 총회장이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송찬우 목사)는 5월 18일

부터 21일까지 펜실베이니아 포코너에 위치한 The Inn at Pocono Manor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여호와를 위하라’를 주제로 개최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25개 노회, 560여 교회 총회총대와 사모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

문성록 목사(포코너노한인장로교회)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감독 한기형 목사)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지아 주 어거스타한인 감리교회(이용성 목사)에서 개최된다. 13개 지방회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참

석하는 이번 연회에는 목사 안수식과 영성 세미나, 은퇴찬양예배, 교회와 모범 교역자, 평신도 표창 등의 순서가 마련된다.

북미주개혁장로회(CRC, 회장 남궁진 목사)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산호세에 위치한 새소망교회(이경렬 목사)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00여 교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총회와 함께 한인교회를 돕기 위한 방안 논의와 목회자 연장 교육, 친교 등으로 진행된

다. 회장으로는 현 부회장인 오세호 목사(오렌지카운티한미교회)가 선출될 예정이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서욱수 목사)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성교회(김삼한 목사)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미국장로회 전국한인교협(PCUSA, 총회장 이승태 목사)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 팔라치오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 21세기 영적대추수를 준비하는 HARVEST 세미나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하베스트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 1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자의 준비-성령충만

영혼을 얻는 일이 목회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현장의 생명은 결국 목회자 자신이 성령충만한가 성령이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회심과 변화,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 일하시는 목회현장의 증거와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령충만은 목회의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성령의 시대, 영적대추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재까지의 경험적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계 온전히 열린 마음과 강력한 사로잡힘,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출발이며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이런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 부분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 2 성령의 시대를 향한 목회 현장의 준비-전문성

그러나 성령 체험만으로 목회자 준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라는 말이 암시하듯 현장사역을 위한 전문성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 영성에 치중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 학위도 있고 인격도 훌륭하고 설교도 좋은데 목회현장은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인적 영성만으로 목회가 쉽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역을 해 낼 수 있는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개인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이 함께 갖춰질 때 살아 숨쉬는 건강한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게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영적 교제가 살아 있는 소그룹, 삶의 변화가 있는 제자훈련,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역동적 사역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스런 생명의 예배 등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적 노하우들 - 이번 세미나에서 초점을 두게 될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 3 성령의 시대를 향한 사모의 준비-소명 재확인

목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사모의 준비입니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진리인 듯이 ‘사모가 살아야 목사가 산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그릇과 사역의 연속성은 결국 사모의 준비, 즉 사모의 영적, 인격적 그릇의 크기만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모는 목회현장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뿐 아니라 가장 큰 무기와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모는 영적 재충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명의 재확인! 열약한 이민교회를 섬기는 사모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힘있게 섬기려면 영적재충전과 사모로서의 소명에 대한 치열한 자기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사모의 영적 재충전 및 소명의 재조명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회복과 치유, 소명을 확인하는 복된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세미나 일정

주후 2010년 8월 2~5일 (월-목)  
온라인등록 [sarangtree.com](http://sarangtree.com)

장소 Radisson Hotel LAX  
6225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LA공항에서 24시간 호텔 무료 셔틀이 제공됩니다.)

등록비 (3박 4일 호텔 숙박료, 식사간식비, 세미나 교재 포함)  
- 5월 31일까지 등록시 목회자 \$275 (개인), 사모 \$200 (개인) / 부부 \$425  
- 6월 30일까지 등록시 목회자 \$300 (개인), 사모 \$225 (개인) / 부부 \$475  
- 7월 31일까지 등록시 목회자 \$325 (개인), 사모 \$250 (개인) / 부부 \$525  
(세미나 초과 등록시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들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등록마감 선착순 300명 (초과 등록시 대기자 명단 있음)

문의사항 하베스트 세미나 담당자  
213) 386-2233  
LAsarang@gmail.com

주관  
ELIJAH KIM MINISTRIES  
LA 사랑의교회  
LA 99-Rang Community Church  
성서부서 부장 / Sr. Pastor Ki-jae Kim

**김종필 목사 부부 (엘리야팀 미니스트리)**  
김종필 목사는 미국에서 김은주 사모는 필리핀에서 지구촌 최대의 부흥을 주신다는 소명을 받아 미주지역 대추수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도성장팀이다. 부흥과 종교기도 그리고 선교를 함께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근대를 통한 종교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사역하고 있다.  
[www.elijahkim.org](http://www.elijahkim.org)

**김기섭 목사 (LA사랑의교회 담임)**  
제자훈련의 변방이라는 LA 한인타운에서 2006년 12월 개척하여 강력한 말씀훈련과 균형 잡힌 성령운동을 통해 헌신된 제자들을 세우려고 있는 이민목회자이다. 간담 없는 신가 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은 1000여명의 중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차세대 목회자 양성과 건강한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보듬스쿨을 통한 핵심 있는 다음세대 신앙개성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품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www.LAsarang.com](http://www.LAsarang.com)

..... 뉴욕서 양 교단 결연 발전 위한 회의 열려 .....

# KPCA·PCUSA 결연 본격화

해외한인장로교회(이하 KPCA)와 미국장로교회(이하 PCUSA) 두 교단 결연을 위한 이행위원회 모임이 은혜교회(담임 이승재 목사)에서 4월 25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양 교단은 1992년부터 Joint Committee를 조직하고 결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이후 Joint Committee는 Covenant Committee로 발전했다.

결연은 2008년 미국장로교 218차 총회에서 통과, 176개 노회의 승인을 받았다. 2009년 KPCA

34차 총회에서는 협약(Covenant Relationship)을 체결해 양 교단 목회자의 이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소속 교단의 직을 옮기지 않고도 상대방 교단 교회에서 청빙 받아 시무할 수 있으며 목회자가 결원됐을 경우 요청을 하면 상대방 교단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KPCA 목회자가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사역할 시 교단 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8일 오전까지 3일간 진행된 회의는 지난해 12월 켄터키 루이빌

에서 가진 모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KPCA 장세일 목사(사무총장), 이승재 목사(은혜교회 담임), 김재동 목사(서울장로교회 담임), 송병기 목사(목양장로교회 담임), 폴장 목사(뉴저지장로교회 EM), PCUSA 김득해 목사(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이윤신 목사(NKPC 사무총장), 김선배 목사(PCUSA 한인목회업무 담당), 폴킴 장로, 린다 커버슨, 로버나 윈부시 목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KPCA총



KPCA, PCUSA 양 교단 대표들이 3일간 회의를 진행했다.

회와 7월 PCUSA총회를 앞두고 목회자 교류 성명서를 비롯해 결연서 조안을 구체화한다.

26일에는 목회자 교류 건을 다루며 27일에는 교육을 비롯해 교류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양 교단 뉴욕, 뉴저지 지역

사무총장(PCUSA) 7인, 노회 관계자(KPCA) 6인이 참석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

KPCA와 PCUSA는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총회 기간 동안 협약 체결 축하식을 개최한다. 2010년 12월에는 양 교단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식을 갖는다. 일정은 장세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로 시작됐다.

장 목사는 “양 교단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를 위해 일하는 한 형제”라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 지난 1년간 전 세계 기독교인 18만여명 순교

지난 2008년 중반부터 2009년 중반까지 1년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수가 17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루에 482명, 3분에 1명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기독교 인권단체인 오픈도어즈, 선교 지원단체인

대에 단순히 신앙을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픈도어즈는 올해 초 발표한 2010년 월드 왓치 리스트(World Watch List)를 통해, 현재 이 지구상에는 1억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

순서대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나라로 꼽았다. 이 중 북한과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나머지 8개 국가는 모두가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이 같은 사실에 무지하거나

### ▶ 오픈도어즈, 리빙워터스 등 기독교 단체들 발표

리빙워터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내놓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인들에게 기독교 박해의 심각성을 알렸다. 리빙워터스의 에벨 쥘인 부회장은 “미국만 해도 한 해에 18만 명 가까이 되도록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이는 무엇보다 오늘날과 같은 시

해 심문을 받고, 체포되고, 최대 사형에 이르는 형벌을 선고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제도와 관습상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오픈도어즈의 이 리스트는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예멘, 모리타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의 10개 국가를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오픈도어즈와 리빙워터스는 미국에 본부를 둔 또 다른 선교단체인 더웨이오브더마스터와 함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고난 아래 있는 기독교인들의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지난 13일 퀸즈에서 평신도가 목회자를 고소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성(性)과 관련된 문제로 목회자가 형사범원에 다녀오기까지 일간지도 관련내용을 보도했다. '성'에 관련된 사안은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터부시돼 문제가 생겨도 당회나 노회 교단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장로교는 그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 부서로 'SEXUAL MISCONDUCT RESPONSE TEAM'을 두고 있다. 특별부서는 노회 서기를 통해 사건을 받아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과 접촉해 조사하고 인터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부서는 변호사, 상담치료사, 목사, 장로로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아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남녀 같은 수로 구성된다. 조사는 90일 이내 끝나며 극비로 진행된다. 그리고 조사 기간 양자는 전화 연락이나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게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 있는 목회자

에게 해당 당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교 및 목회 업무를 당분간 중지할 것과 교회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교인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당회가 교회를

### 한인교단, 목회자 성 관련 문제 다루는 부서 필요

보호하는 차원이다.

조사 후 유죄가 판명이 날 경우 특별부서는 목회자의 전문 상담 치료 기간과 근신 기간을 정해 전달한다. 깨닫고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너무 심한 경우는 목사증을 취소하기도 한다. 근신 기간을 채우고 나서는 교단 목회

분과위원회에서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목회를 계속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

평신도에 대해서도 전문 치료를 통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교회 내 생긴 성적 문제의 치명적인 상처는 '신뢰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에 있다고 미국장로교 뉴욕노회 '부적절한 성적 접촉에 대한 정책 및 절차' 자료는 강조한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나 어린이는 성폭행을 당한 후 죄책감, 수치심, 분노, 불신, 낮은 자존감 등을 나타내는데 낮은 자존감은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변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미국장로교 'SEXUAL MISCONDUCT RESPONSE TEAM'에서 사역했던 관계자는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평신도 양측의 회복이다. 한국 교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있어야 한다. 그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아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힐타워 1904호  
**822-510-5200**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k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의 수련 컨설팅

JAMA 강순영 목사 “위기의 미국위해 함께 기도할 때”

# 美 부흥위해 韓 중보 기도자들이 나선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미국을 위해 50개주의 한인 중보기도자들이 일제히 나선다. 다음 아산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그것이다.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각종 재난, 테러, 심지어 최대의 경제적 위기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시는 경고와도 같은 것. 이에 신앙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회복해 부흥시키자는 중보기도의 자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미국의 각성과 회개와 회복과 부흥을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도전하고 계신다.” 대규모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를 만났다.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특별히 전국 규모로 열리는 이유가 있나.**

현재 미국이 당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정적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탐욕과 부정, 이기주의와 무책임에서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9.11 테러, 뉴올리언스의 침수 등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위기와 재난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다.

기독교 신앙에 근본을 둔 미국이 신앙적인 회복으로 대부흥이 일어나야 도덕성이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큰 부흥을 체험하고 세계선교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말이다.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먼저 대대적인 회개기도를 하고 싶었다. 미국 50개주의 한인 크리스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자마 부대표 강순영 목사.

**-왜 많은 나라들 중 미국의 영적각성이어야만 하는가?**

미국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기독교 수호국의 역할을 하면서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해 온 중요한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나라다. 이런 미국이 무너지면 대신할 나라가 없다. 미국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므로 마지막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나야 세계선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는 전 세계의 차세대 리더 80만 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다. 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나라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 일에 한인 크리스천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히 한국은 미국에 많은 사랑의 빛을 쬐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인재들이 양성됐다. 6.25전쟁에서도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았고 위기 때마다 한국을 도와 준 나라다.

이런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니깐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우리 한인들의 큰 자원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는가.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교회와 미국과 2세대들과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훈련을 받고 중보기도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나, 교회에서 중보기도사역을 하고 싶은 목회자나 사모, 또한 대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등록 참가자들은 오전 9시~5시까지 중보기도를 위한 전문적 강의를 듣고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며, 새벽집회와 밤 집회는 누구나 참석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부흥회로 이루어져 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한마디**

미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다. 마지막 때에 이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 마지막 세계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부흥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일 것이다. 회개와 부흥운동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도 이 운동이 불붙게 만들고 나아가 미국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자.

문의: (Tel) 323-933-4055, (Fax) 323-933-4059  
E-mail: prayer@jamaglobal.com  
홈페이지: www.jamapray.com  
(박상미 기자)

## 디사이플교회 창립 1주년 감사부흥회서 권면

창립 1주년을 맞이한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가 지난 1일~2일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 오정현 목사는 '소명 받은 교회(벤전 2장 9~10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얼바인 지역과 열방, 시대 앞에 놀라운 소명자들로 서라"고 권면했다.

**▶ 소명자가 되려면**

### 오정현 목사 “소명받은 교회, 소명으로 서라”

이날 오정현 목사는 소명자가 되기 위해 “고난에 대한 시각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위탁이 회복되어야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어떤 고난과 눈물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상처와 짐이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 또한 “소명자라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방해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를 경계했다.

**▶ 소명자의 특권**  
오정현 목사는 소명자로서의 특권을 말하기도 했다. 오 목사는 “목회자나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며 “이는 곧 삶 전체를 영적 제사로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오정현 목사. 제공 디사이플교회

디사이플교회는 2009년 1월 고현종 목사님과 30명의 성도들의 개척준비모임으로 시작, 같은 해 5월 3일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디사이플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는 교회, 하나 된 교체가 있는 교회, 진정한 제자로 훈련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전화: 949-502-4923  
(박상미 기자)

## 허리디스크, 10명 중 8명 걸음걸이에 문제

축구국가대표팀 공식지정 '자생한방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걸음걸이의 행태를 조사한 결과 허리디스크 환자의 58%(62명)가 안쪽으로 걷는 형태인 안짱

걸음으로 나타났고, 22%(24명)가 팔자걸음으로 나타났다. 남성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 42%가 안짱걸음, 39%가 팔자걸음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비슷한 반면, 여성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안짱걸음이 76%로 팔자걸음(4%)에 비해

때문에 안짱걸음이 나타난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쪽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리 길이에 차이가 생기고 허리는 옆으로 휘게 된다. 이때 디스크의 퇴행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파열될 수도 있다.

팔자걸음은 허벅지 안쪽의 근육이 약하거나 허벅지 바깥쪽의 근육들이 짧아져 당겨지면서 걷게 된다. 이는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허벅지 뼈와 골반이 기울어지게 만들어, 팔자걸음이 지속될 경우 다리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저린 느낌이 쉽게 나타나고 요통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팔자걸음은 무릎관절 주위의 인대와 근육에 긴장을 주어, 지속될 경우 무릎통증을 유발하거나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상미 기자)



안쪽으로 다리를 많이 꼬거나 짝 다리를 자주 짚게 되면 골반과 대퇴골이 돌출하게 돼 여기에 붙어 있는 엉덩이 근육이 늘어진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

\* 비수술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365일 토/일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는 척추건강 123캠페인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분원'에서

## 청소년 자세교정 및 성장·비만 무료상담 받으세요!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분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의 척추전문한방병원
- 한국 자생한방병원 의료원장 역임 의료진 상주
- 한국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 한·양방재활의학전문의 등10명의 의료진에 의한 365일 양한방통합치료

**한양방 통합치료 센터**

척추관절센터: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특수클리닉: 턱관절장애, 청소년 측만 및 성장, 골프척추관절클리닉  
 웰빙센터: 비만, 불임, 산전산후관리, 여성질환, 만성피로, 보약원  
 양방검진센터: 디지털 X-ray, PACS, EMG/NCV, 체지방검사

24시간 전화예약 및 상담 714-773-7000  
 여행차 보험 및 각종보험 취급 - 직장상해 및 교통사고 전문  
 www.jaseng.co.kr/www.jasengusa.com  
 1950 Sunnycrest Drive Ste 2000 Fullerton, CA 92835

[ 척추건강 1·2·3 캠페인 홍보대사 박지성 ]

# 2세사역, 사역자 양성과 KM·EM간 이질감 해결이 관건

## [이민교회 문답]

### 열세 번째 나침반교회 민경엽 목사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양한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목회자의 교단 배경이나 교세, 목회 연수와 관계없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세 번째 만남은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다. 민 목사는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로 7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로 3년간 사역하다 나침반교회 1대 담임목사인 고오세준 목사의 유언으로 11년 전 나침반교회에 부임했다. 민경엽 목사는 종신 합동신대원에서 M.Div를, 풀러신학대에서 Th.M을 마쳤다.

나침반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 같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며 감사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등 인근 대형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현재 3백여 명의 나침반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할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2세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앙 전수를 위한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중소형 교회는 2세를 위한 사역부서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가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들도 청소년층이 3백여 명이 넘어가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형교회가 이러한데 중소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교육부서 안에는 KM과 EM사이에 이질감이 있다.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세대와 이민 온 세대의 자라온 문화적인 배경,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다. 이것은 2세 사역 부흥을 위해 이민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세대들은 함께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 KM과 EM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같이 있고 싶은 이들이기만 모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사명감 가진 사역자를 양성·배출하는 것이다. 1세대 담임목회자는 2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므로, 전담 사역자를 세워야 하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 -그 이외에 다른 신앙 전수 방법은?

모든 신앙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 이처럼 2세대들이 부모세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자녀들이 부모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신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횃수를 늘리고, 공동의회 같은 공식적인 모임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인의식을 기르게 함으로 신앙전수의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형교회들 사이에서도 꾸준

히 성장하고 있다. 비결이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도 있지만 불신자가 크리스천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질적인 측면의 성장이 있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왔고, 우리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나름의 강점, 즉 확실한 제자훈련이라든가, 진밀한 교제, 자녀교육에 더욱 많은 투자 등과 같은 요소들을 중시해 왔다.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자녀들의 교육공간을 확대하고 싶기 때문이다.

#### -불신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교회가 지원하는 훈련 방법은?

요즘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성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도 성장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성공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발전 시켜 불신자 및 새 신자들이 정착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목회철학을 따라 11년 동안 일관된 프로그램을 따라 훈련을 해왔는데, 3단계의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는 '신앙생활의 패턴화'를 위한 것이고 2단계는 '신앙생활의 생활화' 3단계는 '평신도의 사역자화' 훈련이다.

#### -나침반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회가 지역사회와 일을 하기 위해선 시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

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관계가 좋아서 지역 흠리스들을 돕기에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서 로터리 클럽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시에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불우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 -나침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산야에 가득한 이름 모를 들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그 뜻을 다 알 수 없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가 뜻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뜻 없는 인생은 없듯이 뜻 없는 교회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한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침반교회는 그러한 뜻을 묻고 사명을 찾았다. 제자들이 초대 예수살렘 교회와 같이 기쁨으로 모이고, 또한 초대 안디옥교회와 같이 흠어져서 가정과 일터와 온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태근 기자>

## 딸 잃은 아픔은 잠시... 사위 향한 사랑 계속

교회로 향하는 일심성경정독연구원 김정덕 목사의 발걸음은 무겁다. 평생 김 목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만은 특별하다.

김 목사는 2년전 당시 33살이었던 딸 김혜원 씨를 잃었다. 사인은 심장병. 혜원 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달 전부터 김 목사와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인근교회 찾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이틀전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해 김 목사에게 기쁨이 되기도 했다.

바랬죠,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김 목사는 태원 씨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 위해 함께 교회를 찾아가 예배 드리는 등 신앙생활의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사위를 향한 장인으로서의 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사랑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목사는 태원 씨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바

### 일심성경정독연구원 김정덕 목사, 사위 신앙생활 정착 돕기



일심성경정독연구원 김정덕 목사는 사위의 신앙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사랑의 근심으로 발걸음이 무겁다. © 이태근 기자

하지만 한달간 새벽부터 시작된 달콤한 부녀간의 사랑은 혜원 씨의 죽음으로 끝이났다. 혜원 씨의 죽음에 김 목사 부부는 아픔에 젖었고, 장례식 후인 당일 늦은 밤 아픔을 참다 못해 기도하러 인근교회를 찾았다. 사모와 기도하던 김 목사는 혜원 씨가 천국에 갔다는 환상을 보게 됐고 그 때부터 먼저 보낸 딸 걱정 보다는 남은 사위 태원 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딸이 천국 갔는데 무슨 걱정을 더 할 필요가 있나요. 남은 사위 걱정을 해야죠. 태원이는 딸과 결혼한 후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혼자 가 됐으니 장인과 목사의 도리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말 뿐만 아니라 좋은 반려자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기에 익숙치 않은 태원이가 세상에서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바라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 신앙을 하기 전까지 돌볼겁니다"

김 목사는 오늘도 태원 씨를 향한 사랑의 근심을 앓고 무거움 발걸음을 옮긴다. <이태근 기자>



오엠캠 정책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진들이 함께 단체 촬영했다.

## 오엠캠 정책 이사회 및 사역 포럼 개최

오엠캠(대표 김경환 목사) 2010년 봄 정책 이사회 및 사역 포럼이 지난 3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오엠캠 차기 부이사장 선출 및 회원간 교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교회 부흥회 인도자 LA를 방문한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가 예배 설교자로 나서 주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자고 권면했다.

한편 오엠캠 이사장과 부이사장 취임은 10월 25일 시애틀을 통해

에서 열렸다.

이사장은 현재 오엠캠 부이사장인 시애틀을 통해 교제관 목사가 취임할 예정이며, 상파울루 동양선교회 황은철 목사가 부이사장으로 지명됐다.

<이태근 기자>



# HAPPYDAY CONFERENCE 2010

##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회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벨레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영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이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열방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환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l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김형구 목사

# “바나바처럼 교회와 성도를 세웁니다”

한때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교회 내 갈등과 분쟁으로 60여 명의 성도만이 남았고 그 성도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 축복할 수 있기까지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고 성도와 교회를 먼저 세우는 담임목사가 있었다.

진정한 복음은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이요, 비움으로 채워지는 세계이다. 이제는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세우고자 마음을 모은다. 이러한 하나님은 세상과의 소통과 화해에 원동

서관 등이 이미 그 당시 갖춰졌다. 바로 지난해 하늘샘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30년이 넘는 교회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회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성도들에게도 큰 상처이지만 지역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다.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았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견이 없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특별한 목회방향이 있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치유목회가 아니겠는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로 만들어주는 치유목회 말이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회복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 두 가지는 목회자가 전적으로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이다.

목사는 단지 깊은 영성으로 목회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나를 통해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이처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장로님과 안수집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목회를 지향한다. 진정한 복음은 낮아져서 섬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가.**

온전한 인격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전인목회이다. 제자 훈련이 부름 받은 사람들을 훈



하늘샘교회 담임 김형구 목사.

## 할렐루야한인교회서 하늘샘교회로... 미래의 30년 기대해

력이 되었다. 때문에 과거의 30년보다 미래의 30년이 더욱 기대되는 LA 동부지역에 위치한 하늘샘교회를 방문했다.

**-하늘샘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미국 남침례교단(SBC) 소속으로 1978년 할렐루야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다. 과거 할렐루야한인교회라고 하면 한번쯤 들어 봤을 정도로 90년대 중반까지 크게 부흥했던 교회다. 미주지역 10대 한인교회로 손꼽혔던 교회로, 현재의 교회당과 교육관, 체육관이나 도

**어떻게 부임하게 됐나.**

사실 30대 초반에 본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교회와 인연을 맺지 못했고, 그 후 2000년도에 1년 동안 본 교회 부목사로 있었다. 그러다 세 번째 교회와 다시 만나 지난 2007년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다. 성도들 안에 상처가 많았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오게 됐다.

성도들을 세워주고 사역자들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나를 찾고 세워준다. 이렇게 점점 하나가 되어가니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예배시간에도 뛰어다니면서 서로를 껴안아주고 축복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목회철학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의 롤 모델은 바나바이다. 복음의 전도자 바울 뒤에는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련하는 것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 일관된 교회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되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책임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 보냄을 받는 자들의 훈련이요 이 훈련이 곧 성화의 삶 자체가 될 것이다. 하늘샘교회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30주간 사도훈련을 진행한다. 진정한 치유란 결국 우리가 사도화 되어가는 것 즉 성화의

삶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늘샘교회의 비전을 말해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은 분이다. 하늘샘교회도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함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 두 가지 인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또한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도와 선교를 지향한다. 면 세상과의 소통을 두려워말고 만나야 한다. 바로 그런 교회

가 되길 원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

2년 반이 짧고도 긴 시간이었다. 짧았기에 서로간의 이해가 더욱 필요하고, 또 길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은 목사를 인내로 참아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우리처럼 힘든 교회들에게 나눌 것이 많을 것 같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 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박상미 기자>

##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드려



직분자 취임에서 교역자들이 장로 직분자에게 안수했다. © 이태근 기자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황승일 목사)의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및 직분자 취임 예배를 2일 오후 4시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황승일 목사가 인도

했으며 입례, 기원, 교독문, 성경봉독, 설교, 헌금, 교회연혁, 직분자 취임, 권사·장로패 증정, 축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은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나성금관

교회 담임 윤석식 목사는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윤 목사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이러한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였다.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다"고 전했다. 이어 임직자 9명에 대한 직분자 취임식이 마련됐으며, 행사는 LA지방 감리사 셰릭 브릿지 포드의 축도로 마쳤다.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는 1970년 5월 3일 창립했으며, 모범적인 중형교회로 성장해 연회로부터 수 상하기도 했다.

<이태근 기자>

## '신구약 성경의 인물처럼'

## 목사회 이정현 목사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살자'



남가주목사회 이정현 목사가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자고 권면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가 4월 30일 오후 7시 30분 나성서부교회(담임 김승곤 목사)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자"고 권면했다. 이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성경

의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성공한 삶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요셉과 다니엘, 신약의 인물 바울도 이민자인데 이들 모두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

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간 것' 같이 말씀을 좇아 살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브라함과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준다'는 말씀과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권면했다.

또한 이 목사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옥으로 이끄신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했다"며 "경기침체로 이민생활이 힘들지만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자"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 형제교회 컨퍼런스 2010

### 2010. 6.1~3

새가족 · 공동체 · 전도 · 양육 · 중보기도

# Together

HYUNGJAE CHURCH CONFERENCE 2010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갑니다

**컨퍼런스 안내**

- 대 상: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 접 수: 선착순 150명(4월 15일부터 Online 등록 받습니다.)  
형제교회 웹사이트 [www.hyungjae.org](http://www.hyungjae.org) 에서 접수
- 회 비: \$100
- 숙 박: 민박(무료), 호텔(유료/신청자에 한해)
- 문 의: 전화 425.488.1004, 팩스 425.485.9191  
성환철 전도사(이메일: [johnseong@hyungjae.org](mailto:johnseong@hyungjae.org))

**■주강사**

 권준목사 <small>·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small>	 박형은 목사 <small>· 빛내리교회 담임목사</small>	 정대성 목사 <small>· 뉴라이프선교회 담임목사</small>
-------------------------------------------	-------------------------------------------	---------------------------------------------

# 25주년 코스타 USA '삶과 신앙의 일치' 꿈꿔

'복음, 민족, 땅 끝'이라는 주제로 KOSTA/USA 2010 집회를 앞두고 있는 코스타 USA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코스타 USA는 "그동안 있었던 소중한 만남과 추억,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감격하게 된다"며

에만 국한되는 기독교의 현실을 극복하자는데 초점이 있다.

코스타 USA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과 민족, 땅 끝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일까"라고 반문하며 "이번 집회로 동일한 주제가 이 시대에 의

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우주적 선포인 동시에, 어그리진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공동체적 선포이기도 하다"며 "복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 목표



코스타 USA 포스터.

허락하신 복음의 복을 전 세계의 모든 이들과 나눌 것을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땅 끝은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그러나 또한 선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여 기한다"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 5일~9일까지 개최되는 KOSTA/USA 2010 집회는 시카고(85년 1월 1일 이전 출생)와 스크랜튼(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서 각각 진행되며, 현재 1차 등록접수를 시작했다. 1차 등록은 내달 9일까지이며, 홈페이지(<http://www.kostausa.org/chicago/>)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삼미 기자)

## 2010집회 '복음, 민족, 땅 끝' 주제로.. 의미 되새긴다

코스타 USA를 이끌어왔던 '복음, 민족, 땅 끝'이라는 모토가 한국 복음주의 권에 시대적 영향력을 끼쳤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복음, 민족, 땅 끝'이라는 주제는 '삶과 신앙의 통합'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복음이 삶으로부터 괴리되고 종교의 영역

미하는 바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복음..개인의 구원을 넘어 민족과 땅 끝의 기초**

코스타 USA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적인 구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조세계 전체가 고

이, 민족과 땅 끝의 기초가 되는 포괄적인 가치"라고 밝혔다.

**민족..세상을 섬기는 한민족으로**

또한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 가난과 독재 등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흘

으신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며 "다만 25년 전 우리 선배들은 한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조국을 섬기는 일을 통해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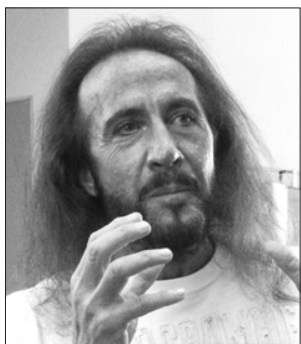
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땅 끝..복음의 경계를 넘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 "뮤지컬 통해 예수님 영접할 때 가장 큰 은혜"

[인터뷰] 히즈 라이프 뮤지컬 중 예수님 역, 랜디 브룩스



랜디 브룩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 은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주최 기독교 뮤지컬 '히즈 라이프(His Life)'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뮤지컬 히즈 라이프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수난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스토리 전개를 넘어 극적인 묘사와 뛰어난 가창력에 의한 감동적인 연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주연급 연기자들은 모두 뉴욕에서 20여 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탑 클래스 배우들로 구성되었으며 깊은 신앙심과 예술성을 겸비해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 주었다.

뮤지컬 중 예수님 역할을 맡은

랜디 브룩스(Randy Brooks)는 뮤지컬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관객들이 뮤지컬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래는 랜디 브룩스와 인터뷰 내용.

**-이번 히즈 라이프 뮤지컬 공연 소감은?**

본인은 21년간 예수님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은혜인교회 공연에서는 새로운 감격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공연을 보러온 관객층이 10세 이하 어린이 세대가 많아서 더욱 그런 것 같다. 어린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책이나 공과공부 시간 선생님께서 전 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번 히즈 라이프 뮤지컬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역할 중 가장 은혜로운 장면은 어디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3). 예수님이 어

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다.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된다. 또한 겐세마네 기도의 기도 장면도 그렇다. 왜냐하면 겐세마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단하셨던 고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체 공연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다. 감정적으로는 공연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 감격이 관객에게 전달되어 다시 나에게 피드백(Feedback)이 되는, 그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들다.

**-히즈 라이프 뮤지컬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한 마디.**

먼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는 뮤지컬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 절대자, 의로우신 분이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대화하며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지재일 기자)



## 청년 사역 위해 창립된 예삼채플 2주년 맞아

청년들을 위해 창립된 청년교회 예삼채플(담임 손경일 목사)이 5월 2일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는 모토로 시작했으며, 청년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민교회의 청년 사역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위해 시작돼 이민교회에 시선함을 안겨줬다.

예삼채플은 교회의 모든 일을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하며, 모교인 베델한인교회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교회 내에 교회가 새로운 형태로 운영되어 나가는, 화합과 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꿈을 꾸고 있다.

창립 후 교회는 예배와 선교, 훈련에 집중해 4백여명의 청년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는 창립 2주년을 맞아 청년들이 기쁘고 출연하는 뮤지

컬 예배 및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초청해 집회를 계획했다.

강사로는 스펜포드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박사가 된 후 밝은 미래가 약속됐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맡기고 중국 선교사의 길로 뛰어든 최하진 선교사와 탈북해 미국으로 이민와 북한 선교를 위해 뛰는 모통이들 선교교회 이사 선교사 등이다.

(이태근 기자)

## 나성영락교회, 미자립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원

나성영락교회(담임 립형천 목사)에서는 미자립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목사, 전도사)의 자녀로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한 가정에 한명의 학생에 한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이 아닌 타 지역 목회자 가정, 선교단체 사역자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신청서

## 5월 29일까지 신청서 제출 마감, 총28만불 지급 예정

올해 총28만 불의 장학금으로 285명의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인 나성영락교회는 내달 29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은 전일교역자

단, 전일 이민목회자가 아닌 가정이나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목회자 가정, 연간 예산 3만불 이상 교회의 목회자 및 1백만불 이상 교회 전일부교역자,

는 교회 홈페이지(<http://www.youngnak.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박삼미 기자)

# 주택 차압/퇴거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리)**  
**213-248-9297**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5월 10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http://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mailto: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턴)

# SB 67 법안, 아시안 단결된 힘으로 또 다시 무산

## 헬렌 김 변호사, 법안 의회서 누락돼 지속적인 연합 당부

반 이민법으로 지칭되며 아시아계 및 소수민족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조지아 주 'SB 67법안'이 지난달 29일 밤에 열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누락됐다.

헬렌 김 변호사는 30일 오전 보낸 이메일을 통해 "어제 밤까지 의회에 있었던 로비스트 래리 펠리그리니 씨에게 연락을 받았다. SB 67법안은 투표를 위해 의회에 언급되지 않았고"고 전했다.

헬렌 김 변호사는 30일 오전 보낸 이메일을 통해 "어제 밤까지 의회에 있었던 로비스트 래리 펠리그리니 씨에게 연락을 받았다. SB 67법안은 투표를 위해 의회에 언급되지 않았고"고 전했다.

가 다시 해냈다"고 기쁨을 감

추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SB 67법안 반대사를 표명해 준 26개의 사업체와 비영리단체에 감사"를 전하며, "아시아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작년은 물론 올해도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 며피 주 상원의원(공화)이 발의한 SB 67법안은 운전 면허를 영여로만 치르도록 제한하는 법안이다.

<권나라 기자>



지난 4월 12일 한인회에서 한인을 포함 약 20여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SB 67법안 반대사를 표명했다.

# 뉴저지한인목사회 창립총회 갖고 초대 회장 선출



뉴저지한인목사회 창립총회를 가진 목회자들

뉴저지한인목사회(가칭)이 출범된다. 초대 회장에는 김정문 목사가 선출됐다.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은 5월 4일 오전 10시 월레기도회 및 목사회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기도회 후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참가자들은 뉴저지 목사회를 조직하는 것에 찬성하고 명단을 작성했

다. 부회장은 강세대 목사가 맡는다. 이외 임원진은 총무 박찬순 목사(뉴저지임마누엘교회 담임), 협동총무 김흥교 목사(뉴저지정보은교회 담임), 박정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담임), 서기 우종현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 회계 이은혜 목사(뉴저지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뉴저

지교회 증경회장단은 자문위원단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관 초안은 작성된 상태로 앞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게 된다.

김 목사는 "회장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하지만 제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보여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취임사

를 전했다. 김정문 목사(뉴저지성은장로교회)는 기도회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했다. 그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자"고 전했다.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주변의 동역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더불어 뉴저지호산나대회 강사인 나성영락교회 담임 림형천 목사와 집회를 위해, 뉴저지교협의 각종 행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호산나대회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린다. 림 목사는 녹 5장 1절-11절, 계 3장 7절-13절, 마 8장 5절-13절을 본문으로 3일간 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윤주이 기자>

## 한인연합감리교회들 연합해 뜨겁게 기도

# 분쟁 속 시카고 교회 위해 목회자-평신도 기도

30일 오후 8시 시카고 지역의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시카고 교계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열었다.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시카고 교회들을 위해 목회자, 평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 기도회는 열리기 전부터 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용선 목사(중앙감리교회)는 막9:28-29 말씀에 근거해 "기도 외에는"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병어리고 귀먹은 귀신'만은 쫓아내지 못했다"면서 "지금 시카고 교계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과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교회를 쫓고 다니며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더 직접적으로 "우린 오늘 시카고 교계를 위해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모였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요즘 교계가 왜 이러냐'라고 한탄만 하고 있거나, 심지

어 '그 교회가 깨졌으니 우리 교회로 좀 오겠군'이라는 식의 옳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의 죄부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카고 교계를 회복 시키실 것이다. 오늘 한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기도해 보자"고 도전했다.

설교에 이어 박미숙 목사(샘물교회)가 인도한 '교회를 위한 기도' 후엔 우민혁 목사(배링턴양의문교회)가 개인과 가정의 위해 기도했다. 이 순서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목회자들의 안수 기도를 받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끝으로 세상을 위한 기도를 맡은 백영민 목사(글렌브룩교회)는 올해 초 발생한 전세계의 분쟁과 전쟁, 제양에 관한 동영상을 프리젠테이션한 후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전세계의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웨슬리의 후예임을 자부하

는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중앙감리교회, 샘물교회, 배링턴양의문교회, 예수사랑교회, 글렌브룩교회, 샬렘교회, 갈릴리교회 등 시카고 지역의 감리교인들이 참석했다. 윤국진 목사(예수사랑교회)는 "올해 연합감리교회 연합신년축복 금식기도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연합감리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연합과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번 기도회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조직을 갖추거나 인원 동원에 주력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교계를 격정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각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교회 내 금요기도회를 이 연합기도회로 대체했으며 교회 웹사이트에 연합기도회를 공지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합감리교회들은 이번 기도회에 그치지 않고 오는 6월 25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한국전쟁 기념 연합기도회를 열고 북한 동포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 교계의 갈등을 우려하며 치유를 기도하는 성도 1백여명이 중앙감리교회에 모였다.

## NYTS 도시의천사상, 뉴욕교협 수상

### 한인 교계 협력에 감사, 더욱 긴밀한 협력 요청 의미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 이하 뉴욕교협)가 뉴욕신학대(New York Theological Seminary)가 수여한 도시의 천사상을 4월 20일 맨하탄 매리엇 마루스 호텔에서 수상했다.

뉴욕신학대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뉴욕 커뮤니티와 교회에 봉사하며 사회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선정해 2004년부터 도시의 천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첫 회부터 지금까지 매 회마다 1명의 한인 수상자가 있었으며, 단체로는 처음이다.

이날 신현택 목사(회장)는 "세계 선교 및 다민족 선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뉴욕신학대가 한인 교회의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어 감사하다"며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협력으로 귀한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NYTS 박사과정 백장건 목사는 "학교 측은 한인 교계의 협력에 감사하고 더욱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로 상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날 스텝으로 참여한 뉴욕신학대의 한인 직원은 "이민 목회가 중요해지고 있으니 뉴욕교협이 도시의 천사상을 수상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현재 뉴욕신학대의 한인 학생은 전체 학생의 15% 정도로 50-60명이 된다. 최근 3년간 학생 수가 이전의 두 배 가량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상야 기자>

# 2010년 봄학기 학생모집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대학원 World Christian Theology & Seminary

이 불경기에 아직도 비싼 학비를 내고 공부하십니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무료)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정규 신학 대학교로 초대합니다.

대학부(B.A)	대학원(M.Div)	박사원(Doctor)	통신 학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자격: 4년제 대학	입학자격: 석사 학위 소유자	(Department of Home Study) 대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틀어 수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입니다. (미국과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가능합니다.)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박사, 종교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명예 박사 수여도 가능합니다. (특별 상담 가능)	

### 본교 특징 (수시입학 가능)

1. BPPVE와 ABHE 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교입니다.
2. M.Div 졸업자는 본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 대학부 만은 전액 장학금을 드립니다.
4. 의식주 문제있는 학생 해결
5. 여학생사 지원하는 학생 적극 지원
6. 선교사(악기, 성악) 기도원장 이수과목 수료후 자격증 발급 및 사역 지원

학교 (323)734-0227 미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323)734-2300 교무처 직통 (213)725-3007, (323)734-4599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킨 조국, 이제 우리가 기도로...”



예배 전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순국 용사들 앞에 촛불을 놓고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천안함 순국용사 46인을 위한 국회 추모예배가 3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대예배실에서 개최됐다. 순서자들이 진행한 추모의 촛불 점화로 시작된 예배는 김삼환 목사가 '위로의 하나님(고후 1:3-4)'을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인간

선하는 것은 안보이며, 여야나 모든 기관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정권은 햇볕이라는 미명 하에 나라 안보도 생각하지 않고 이쪽(남한)에 어둠이 들어 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쪽(북한)

합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철야기 도회를 인도했던 이광선 대표회장은 "조국의 바다에서 산화한 우리 아들들의 애국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기리고 지키고 따르다면 반드시 이 잔인한 세월이 지나고 푸른五月이 올 줄 믿는다"며 "우리가 그들의

## 국회서 천안함 순국용사 46인 추모예배

의 위로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며 "하나님께서 46명 한 분 한 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부모도 친구도 그들에게 갈 수 없지만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번 일을 통해 모든 희생은 값지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모든 일에 우

만 비취었다"며 "땀이 웃어도 그 안에 독이 있듯, 공산주의는 그 DNA가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북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광선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병호 회장이 추모사를 각각 낭독했다.

애국적 희생을 진정으로 기억한다면 물밑에 오는 어뢰도, 하늘에 날아가는 모든 무기도 판별할 수 있는 제2의 천안함을 다시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호 회장이 "그들은 이 나라 강도를 지켰는데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주님께서 그들의 푸른 꿈이 한순간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데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푸른 동양의 꿈이 이뤄지도록,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순국 용사들을 추모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도 국회의원 대표로 추모사를 전했다. 해군 출신인 황 의원은 "우리는 이제 그대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조국을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소리없이 어느 곳이든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잠수함이 출현한 다음부터 해군은 모든 구조가 바뀌었는데, 국가가 이러한 대잠능력을 보강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우리는 이제 그대들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놀라운 번영을 지켜내 후손들에게 남겨야 한다"며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복을 누릴 46명의 호국영령께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삼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해군 대표로는 유영승 해군 군목단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전날 영결식에서 기독교 대표로 종교의식을 치렀던 유 군목단장은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례를 무사히 치른 점에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며 "명쾌한 사고원인 규명과 무너진 해군 장비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의 군대가 우리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마지막으로 "저희 군목들도 더욱 각성하고 영적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바이블 엑스포, 논란 속 본격 제작 돌입

### 중국 제작 스태프 중 선발대 50명 입국

최근 실현 가능성과 저작권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바이블 엑스포(The Bible EXPO 2010)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블 문화 콘텐츠 행사"를 기치로 걸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

더 바이블 엑스포 2010 주관사 (주)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대표 조규민)는 행사장 제작을 위한 중국 제작 스태프 선발대가 지난달 2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대와 함께 입국한 자공등무유한공사(장능 부사장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블 엑스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세계적인 빛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제작 기술과 노하우

를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중국 제작 스태프 선발대는 그동안 2007년 대전 슈퍼 차이나, 2009년 미국 루이스빌 전시 등 여러 대형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 조명 디자인(Light Art)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인천 송도 엑스포 행사장에 상주하면서 바이블 엑스포의 주요 전시물에 조명 디자인을 접목한 조형물 제작을 통해 엑스포의 주제인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에 걸맞는, 빛을 통한 색다른 조형예술을 연출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더바이블엑스포2010의 주요 조형물을 제작할 중국 제작 스태프 선발대 50명이 4월 27일 입국, 인천 송도 엑스포 행사장 현장사무실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 교과부 “박형택 목사 학력은 무효, 졸업취소돼야”

### 비인가 S신학교의 학점은 인정 못해... H대로의 편입도 불법

학력 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에 대해,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력) 무효” 판단을 내리며 “졸업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박형택 목사의 모든 학력은 사실상 '원천무효'가 됐으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박 목사의 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예장 합신측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최근 질의한 '부당한

학력 취득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의 건'에 대하여 답변서로 보내왔다. 본지의 질의에 포함된 내용은 “현행법상 비인가 학교 학력을 근거로 각종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박형택 목사가 비인가 학교인 S신학교의 학력을 근거로 각종학교인 H대에 진학한 것”, “박형택 목사의 S신학교 성적표를 보면 군복무 기간 중 학점이 기록돼 있는데 당시 그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술연구정

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비인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상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학점을 근거로 각종학교로 편입학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즉 박형택 목사가 고교 졸업 후 진학한 S신학교에서의 학점은 실제 취득 여부와도 관계 없이 고등교육법상 '원천무효'이며, 이에 따라 그 이후의 학력 역시 자연스럽게 무효화되는 것이다.

답변서에서는 또 “아울러, 고등

교육법 제62조 제2항 및 제64조에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에 교과부에 재차 보낸 질의서를 통해 또 박형택 목사의 학력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교과부는 구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등

을 들어 “(민원인이 주장하는 박형택 씨의 이력이 참일 경우) 이후 적법조치로 학교가 직접 졸업 취소하거나, 교과부장관의 졸업 취소 명령 발령을 통한 학교의 졸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님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비인가학교에서의 학점을 근거로 각종학교에의 편입학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비인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상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학점을 근거로 각종학교로 편입학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2항 및 제64조에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지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2010 미국내 SWIM 선교회 우물 파기 훈련에 초대합니다!

단기 혹은 중/장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교지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강력한 Tool을 소개합니다.

**공중위생 보건 / 야외 화장실 / 정수기 제작 / 우물파기 / 자연 농업**

위 5가지 선교의 도구는 열악한 선교지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현지인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교육 훈련하여 저들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는 것입니다.

**SWIM 선교회에서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HELENDALE에서 훈련을 합니다.**

우물 파기를 제외한 4가지 과목들은 등록비가 \$150.00이며 이 등록비에는 숙식, 교재, 실습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선교는 위 5과목중 하나라도 훈련받아 전문인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 Our Mission...

To provide the basic water needs to developing countries

**훈련 과목:** 위생 보건 교육 / 야외 화장실 짓기 / 정수기 제작 / 우물 파기

**장소:** 35000 Indian Trail, Helendale, CA

**날짜:** 2010년 5월 27일(목)~29일(토)

**목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에 기록된 훈련 과목을 훈련 받아 선교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모집 인원:** 우물 파기(6명) / 정수기 제작(12명) / 야외 화장실(6명) / 공중위생 보건(12명)

※ 등록은 5월 15일(토)까지 전화나 E-mail로 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swim2004@gmail.com**

**Tel : 714-403-2121 (임영호 장로)**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홍근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c.org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더너운 4기 Crocker St.)  
 1부기도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후 1:00  
 2부세례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인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스교회**  
 담임: 안홍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순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반)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한인어린이회**  
 회장: 테레사 임 목사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 IRS  
 T. (213) 380-1112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Coffee Break Small Groups**  
 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8208 Pa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 (714) 995-4461 / F. (714) 974-3017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키드메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김승욱 칼럼



김승욱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로 불확신 중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쓴 글 중 '불확신의 은혜'라는 글을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계산하고 계획하며 확신 가운

다.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작별해야 하며, 앞으로는 전혀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십시오. 매우 낙관적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해 오히려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10살 때

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또한 예수님에 대해 체험한 만큼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체험한 것을 넘어, 몽땅 다 맡기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구하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식과 교양 면에선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믿음 생활에선 어린아이처럼 더욱 단순해집니다. 오늘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내가 없애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 어린아이처럼

〈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 갖고 사는 법 〉

데 움직이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항상 그럴 수 없다고 챔버스 목사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갖고 살기에, 불확신 속에서도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따라 이민 가는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습니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저도 당시 슬퍼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나지만, 그러나 기대감으로 더 부풀어 있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한 상황을 거처면서도 확실한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 믿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을 가리켜, 그들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8:1~4). 주님의 눈에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

얼바인에 사는 초등학생 B군은 감기만 걸리면 고열로 간다. 겁이 난 어머니가 해열제를 사다 먹이면 그때는 열이 좀 식는 듯하다. 밤이 되면 다시 열이 오른다. 벌써 그런지도 며칠째인데 계속 해열제를 먹이기도 그렇고 걱정이 태산 같다.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면 부모님들은 열이 41도가 넘으면 뇌세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과 맞서게 된다. 그 차가운 기운이 현대의학에서 부르는 바이러스즘 되겠다.

그래서 체온은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열은 몸에서 감기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스스로 감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아이에게 몸에 해열제를 투여하게 된다면, 열은 금방 내려가

이다. 이런 아이들은 감기를 달고 살고 성장도 느리며 비염, 중이염, 소화불량 등의 후유증도 남으며 얼굴 색깔도 눈 밑과 입 주위가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땀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이 나면 서 미열이 있다면 관찰해보고 약

## 아이들의 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포의 과사가 시작된다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먼저 떠올리며 허둥대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일단 열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소아의 미열은 병을 이겨내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열이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깥의 차가운 기운에 접한 아이는 그 차가운 기운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몸에 열을 내어서라도

겠지만 해열제의 차가운 성질이 병의 원인과 함께 몸에 그대로 남게 된다. 결국 아이는 맥이 빠져서 몸이 냉한 상태로 있게 된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힘을 회복해서 해열제와 냉기를 몰아내기 위해 다시 열을 낸다. 그러면 겁이 난 어머니는 해열제를 다시 먹이게 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아이의 면역력만 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을 먹여도 늦지 않다. 땀이 나는 것은 몸 안에서 열을 배출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방열판, 즉 라디에이터가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열이 내려오도록 오히려 따뜻한 죽이나 미음, 생강차 등을 먹이면서 배에 핫팩을 해주고, 족탕을 하면 한 두 시간만 지나면 땀이 흐르면서 미열이 식게 된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는 몸을 도와 외부에서 침입한 차가운 기운을 조기에 몰아내기 위해서이다. 또 열이 전체적으로 나는 경우보다 머리 부분만 뜨겁고 배나 손발이 찬 경우가 아이에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것은 아이가 평소엔 중초가



###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세상에 참 황당한 일, 웃기는 일, 기가 막힌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엄청 좋은 꿈을 사고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다가 마음 한구석에서 은근히 부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을 느꼈습니다. 황당무계한 것, 무가치하기 이를 데

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와 교회 안에서 형성되는 꿈과 비전에는 반드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잠언 29:18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란 '비전' 또는 "꿈"을 말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삶이 방향성이 없는 삶인

## “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없는 것에도 그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인데, 교회와 더불어 잉태된 원대한 꿈에 대한 평가절하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맹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지, 먼지를 뒤집어 쓴 싸구려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던 걸작이었다든지... 등등. 또 반대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명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교한 짝퉁이었다던가... 그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위작이었다던가... 등등 말입니다. 자칫하다가 가치 있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뒤바뀌어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가치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꿈꾸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는 우회적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인생은 꿈이 있기에 성경을 원리로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꿈은 성경의 원리를 실천할 때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품게 된 꿈을 가지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더불어 품는 꿈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은 꿈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꿈꾸는 인생, 그리고 꿈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꿈을 논하고, 그 꿈의 완성을 위해 동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품게 된 꿈의 가치를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 한방 칼럼



봉승전 목사  
경희한방병원

막혀 열이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는 발목과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어 돌리거나 손발과 배 부분을 중심으로 온몸을 마사지 하게 되면 열이 식으면서 열의 불균형이 해소되게 된다. 하지만 땀이 나는지 여부를 떠나 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부모님들께서 당황하지 않고 열에 잘 대처한다면 병이 물러간 다음에 얼굴이 오히려 전보다 생생하고 맑고, 더 씩씩하게 노는 아이의 모습,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희한방병원 가든그로브 T. (714)537-0800  
얼바인 T. (949)355-5594

# 여드름 완치!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Before



After





## 경산한의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el. 213-380-0835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

# 월드비전

## 아이티 지진 구호 활동 90일 보고

식량, 식수, 보호 시설... 각 부문 별, 총 192만 명에게 구호 활동 펼쳐  
효과적인 구호 활동으로, 5,400만 정부 후원금 수여 받아 장기 사업 진행

아이티 지진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다. 아이티 정부 공식 집계, 217,366명의 사망자와 300,57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 사태는 서반구의 최대 빈국인 아이티를 더 깊은 가난과 절망으로 몰아 넣었다. 지진 발생 24시간 안에, 여름철 허리케인 피해 대비용 구호 물품을 지진 희생자들에게 제공하며 신속한 구호 활동에 나선 월드비전은 지진 발생 90일이 지난 4월 15일, 3개월간의 구호 활동을 종합한 '아이티 지진 구호 90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각 부문별 구호 활동 내역과 함께 총 1,911,049명의 지진 희생자들을 도운 구호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특히, 월드비전은 UN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의 구호 식량 분배 기관으로서 160여 만 명의 이재민들에게 구호 식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질서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식량 배급 활동을 수행해 '모델 케이스'로서 다른 구호 기관에 추천 되기도 했다. 또한, 아이티 지진 구호 활동에서 보여준 월드비전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구호 활동에 고무된 미국

국제원조개발처(USAID)는 두차례에 걸쳐 총 5,400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 후원 사업 대행 기관으로 월드비전을 선정하고, 장기적인 식량 지원과 식수 개발 및 공중 위생 향상 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한편, 2007년 '아시아 쓰나미 구호 활동 5년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 월드비전은 앞으로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아이티 지진 구호 및 장기 복구 활동 진행 사항과 함께 아이티 구호 성금의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 아이티(Haiti) 지진



▲월드비전은 세계식량계획의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참여해 160만명의 이재민들에게 구호 식량을 전달했다.

## 시간대 별 아이티 지진 구호 활동



◆지진 발생 전  
- 여름철 허리케인 피해를 대비, 아이티 주요 지역에 구호 물품을 미리 저장해 둠  
- 아이티 내 19개 개발 사업장에서 30만 아동에게 혜택  
- 360명 월드비전 직원 개발 사업 추진



◆지진 발생 24시간  
-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긴급 구호팀 아이티 지진 현장에 파견  
- 허리케인 대비용 의약품, 포르토프랑스 인근 병원에 지원



◆지진 발생 72시간  
- 첫번째 구호 물품(\$75,000 상당) 실은 항공기, 포르토프랑스 공항에 도착  
- 구호 모금 활동 위한 사진, 비디오 전송 시작  
- 도미니카 공화국 Jimani시 병원에서 지진 부상자 치료 시작



◆지진 발생 7일  
- 아이티 내 4곳의 구호 물품 창고에서 구호 물품 분배, 11개 병원에 의약품 전달.  
- 80명의 긴급 구호팀원, 풀 타임으로 구호 활동 펼침  
- 항공편 통한 구호 물자 도착



◆지진 발생 30일  
- 500,000명의 지진 피해자, 구호 식량과 비식량 구호 물품(담요, 텐트 등) 받음  
- 네 곳의 이동식 보건소에서 기초 진료 및 치료 활동  
- 여섯 곳 아동 보호 센터 설립



◆지진 발생 90일  
- 총 1,911,049명 월드비전으로 부터 구호 물품 및 서비스 수혜  
- UN세계식량계획(WFP) 식량 배급 대행 기관으로 포르토프랑스 인근 160만 명에게 식량 전달  
- 국제원조사업국(USAID)의 정부 후원금 대행 기관으로 선정, 장기적인 아이티 복구활동 참여

## 포커스 인터뷰

박준서 | 월드비전 아시아 후원개발 부회장

### ▷앞으로 월드비전의 장기 아이티 구호 계획은?

재난 지역의 장기 구호 계획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일방적인 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 현지 정부를 포함한 사업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변수들에 대한 분석, 우선 사업 순위 지역 선정, 사업수행기관, 지역 커뮤니티들과의 협력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 해야만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복구에 사용하는 성공적인 장기구호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티 지진 재난의 경우,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 하고, 아이티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식량난과 빈약한 사회 간접 시설, 그리고 그리고 복잡한 정치, 경제적인 환경들로 인해 보다 신중한 장기 복구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5월 중 캐나다 오타와에서 구호 활동 및 지역 개발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티 장기 복구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현재 90일 동안 진행해 온 분야별 구호 활동, 집중 지역, 수혜대상 등을 연장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기 복구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장기구호 활동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4년 아시아 쓰나미 재난 당시, 월드비전은 다른 구호 기관이 초기 구호 활동을 마치고 떠난 것과 달리, 5년 동안 피해 현장에 남아 피해자들의 재활을 도왔고, 2009년 9월, 5년 활동 최종상세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월드비전 구호 활동, 무엇이 다른가?

### ① 재난현장개입의 효율성

- 이미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드비전은, 재난 발생 시, 외부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타 단체, 기관과는 달리, 현지 월드비전 직원들이 자국내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지 언어를 바탕으로 문화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지진 발생 당시, 360명의 월드비전 직원들은 48시간 내에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② 긴급구호활동의 신속성

- 재난 발생 시, 후원금을 모은 후, 그 후원금을 바탕으로 현장 사업을 시작하는 타 단체, 기관과는 달리, 월드비전은 지난 60 여년의 전 세계 긴급구호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본부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긴급구호사업 예산으로 재난 발생 직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전세계 주요 지역(미국, 남미, 중동, 유럽, 아시아 등)에 구호 물품 비축 창고 운영 시스템(GPRN, Global Pre-positioning Resource Network)을 가동하여, 재난 현장에 필요한 구호 물품을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③ 긴급구호활동의 전문성

- 월드비전은 월드비전 국제 본부 직속기관으로, 20년 이상의 오랜 구호 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긴급구호활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구호팀(GRRT, Global Rapid Response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들을 즉각 투입하여, 현장에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현장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④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대외 협력

- 재난 발생 시 의욕을 앞세워 무작정 현장 활동을 시작하는 타 단체, 기관과는 달리, 월드비전은 60년에 이르는 긴급 구호 현장 경험을 통해, UN 및 산하 긴급구호활동 관련 기관(WFP, UNHCR 등)들과 독특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그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일사분란한 활동을 펼쳐, 발생할 수 있는 현장활동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아이티 재난에 세계식량계획(WFP)은 월드비전을 통해 160만명에게 구호 식량을 배분했고, 국제원조사업국(USAID)은 5,400만 달러의 정부 후원금을 월드비전에 수여 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지진 구호 활동 하이라이트

### ▼부문별 수혜자 수

부문	수혜자 수
구호 식량	1,613,228명
임시 피난 시설	93,505명
비식량 물품	119,455명
식수 공급/개인 위생	37,295명
아동 보호	5,166명
헬스 / 영양	41,925명
생계 지원 활동	475명
총 수혜자 수	1,911,0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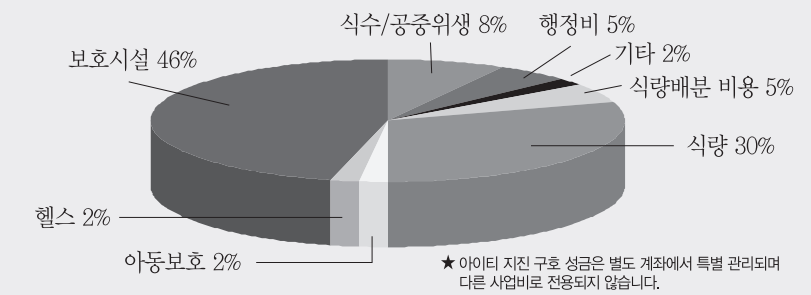
- 2,000톤(8백만 달러) 구호 물품 아이티 선적
- 475 가정, 생계 지원 노동 프로그램 참여
- 15개 아동 보호 센터 설립 및 운영
- 13개 유아 보호 센터 설립 및 운영
- 3,860 환자 이동 보건소에서 진료 받음

### ▼비식량 구호물품

구호물품	분배 수량	수혜 가정 수	가정 당 구호품
담요	14,576	7,288	2
손전등	4,823	4,823	1
위생 키트	15,757	7,879	2
조리 기구	21,266	21,266	1
매트	2,376	1,188	2
모기장	18,817	9,409	2
방수포	37,695	12,565	3
텐트	6,101	6,101	1
식수통	31,774	10,591	3

- 지진 발생 72시간 만에 텐버에서 20톤의 구호 물품 선적한 수송기 포르토프랑스 공항 도착
- 90일 동안, 총 50편의 항공기편으로 2천 톤의 비식량 구호품 수송
- 1,200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 선적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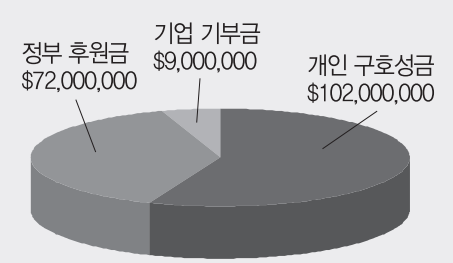
### 〈아이티 지진 구호 사업비 사용내역〉



### 〈사업비 사용내역표〉

각부분	비용 (단위 \$)	퍼센트
보호시설	15,691,736	46%
구호식량	10,139,242	30%
식수/공중위생	2,667,079	8%
식량배분 비용	1,703,521	5%
행정비	1,600,941	5%
헬스	700,151	2%
아동보호	722,399	2%
기타	842,335	2%
총액	34,067,404	100%

### 〈아이티 지진 구호 모금 현황〉



#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다! 2010 형제 컨퍼런스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0 형제 컨퍼런스 ©시애틀 형제교회

“많은 교회들이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서 방해를 받아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상처, 그로인해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며 형제교회가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제교회는 권 목사 부임 당시만 해도 2백여 명이 출석하는 장년 중심의 교회로 담임 목사보다 젊은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령화 된 교회였다. 또 건축문제로 성도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현재 3천 5백여 명이 출석

## ‘함께’란 주제로 이민교회의 갈등과 아픔에 대한 해답 제시

부흥의 길목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명실공히 시애틀을 대표하는 한인교회가 되었고 매달 다수의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젊은 교회가 됐다. 형제 컨퍼런스는 이런 형제교회의 변화 비결을 나누는 자리다.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의 변화 비결을 공개하는 제4회 형제 컨퍼런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가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다. 형제교회는 권 목사가 부임한 2000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협력해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미주에서 주목받는 교회 중 하나가 됐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존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 간의 기득권 다툼,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로인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권 목사가 28년 된 형제교회 부임 후 경험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기성교회가 변해 부흥할 수 있다’는 비전으로 교

인들이 하나된 과정을 소개한다.

권준 목사는 “변화와 회복을 갈망하지만 뭔가 막혀있고 풀리지 않았던 교회들에게 형제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교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일어나는 교회 부흥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초대와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함께(Together)”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가 일치와 화합에 대해 묻는 기성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교회가 변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 공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꿈임을 보여주는 것을 소망한다”는 형제교회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로 인해 세상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또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비전을 현실로 이뤄갈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총5회의 주제 강의와 선택강의로 이뤄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형제교회 사역 현장을 구석구석 짚어보게 된다. 또한 박형은 목사(달라스 빛내리교회),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교회)의 특강이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석은 선착순 150명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다.

(김브라이언 기자)

## [인터뷰] 시애틀 열린문 교회 담임 조범철 목사

30년 동안 10여 명이 남아 명맥을 유지해 온 미국 교회에 한국인 1.5세 목회자가 청빙돼 2년 만에 다민족 교회로 거듭난 교회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인 시애틀 열린문 교회(담임 조범철 목사, 41)는 60년 전통을 가진 교회로 개척초기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교인들의 이동이 가속화 되면서 30년 전 부터는 10여 명만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 목사 부임 이후 교회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 특성에 맞춰 교회의 문을 열었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영어, 한어, 네팔, 사모아 화중이 연합해 유기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 변화를 향한 시도,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끊이지 않는 예배

교회가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것은 조 목사를 청빙하면서 부터다. 전통적인 미국 교회에서 30대 후반의 젊은 한국인 목사를 청빙한 것부터 파격적인 일이었다. 조 목사는 부임 직후 교회가 너무 썰렁(?)했다며 먼저 예배의 부흥 선포했다.

“주중에는 교회 문을 굳게 잠가 놓고 주일에만 잠깐 문을 열어 예배를 드렸고, 이후 교회 문은 다시 굳게 닫히게 되더라고요.”

조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곳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예배 신실 및 분위기 혁신에 나섰다. 설교자와 성도들 사이를 막았던 큰 칸대상과 성찬상을 없애고 아담과 칩처럼 분위기를 밝은 조명으로 대신했다. 마이크 없이 설교하던 것에서 설교의 확실한 전달을 위해 스피커도 설치했다. 이런 노력은 외부 환경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한 변화의 시도였다.

‘예배는 순서에 사로잡힌 예배, 형식에 맞춰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에 따라 점차 변화됐다. 외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 결과만을 볼 때 조 목사가 강권적인 요구를 한 것 같지만 조 목사는 매우 섬세하게 변화를 진행했다. 교인

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다.

목회자에게 반대하는 교인을 더욱 사랑하고 몸이 아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회를 추구했다. 초교과 사역을 위해 교회 이름을 바이블 배티스트 처치에서 시애틀 열린문 교회로 바꾸는데만 1년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세심하게 교인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현재 교회는 각 사역 및 권역별 주일 예배만 6번 있고, 새벽예배를 비롯해 수, 목, 금, 토요일에는 각 나라별 예배가 진행된다. 주중에는 성경공부까지 있어 교회는 날마다 성

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것이 주일 오전 6시 30분 예배와 오후 3시 30분 예배다. 기자는 이 두 예배를 신실한 이유를 들으며 조 목사의 목회철학을 읽을 수 있었다. 오전 6시 30분 예배는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게 됐다. 조 목사는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이민자에게 직업을 포기하라고 할 수 없었고 주일예배를 지나치라는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오

전 6시 30분 예배. 지금은 한 가정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여러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됐다.

오후 3시 30분 예배는 노숙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예배다. 주일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노숙자들을 전도해오면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다.

“비록 단 한 가정을 위한 예배이고, 남들에게 외면하는 당하는 노숙자들이지만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조 목사의 말 속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김브라이언 기자)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하고,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하는 조범철 목사 ©김브라이언 기자

## 2010 북가주선교대회, 25개 선교단체 참여 한철호 선교사, 김용의 선교사 등 새로운 강사진 참여

2010 북가주선교대회가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임파뉴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교대회 강사는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상임위원장),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양영자 선교사(WEC), 루이스 부시, Marcelo Gonzales와 10명으로 각

선교단체 또는 선교연합기구에서 활약하는 이전 선교대회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신신하고 큰 비중을 가진 강사진들이 등장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7시 양영자 선교사(WEC) 선교보고,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로 시작되는 이번 선교대회는 실제 선교현장에서 전문사역이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사 강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외에도 김승호 선교사(한국 OMF 대표), 김세도 선교사(한국

GMP대표), 정정섭 회장(한국 국제기아대책 대표) 등 한국 주요선교단체 대표들도 선교보고 및 메인강사로 참가한다.

또한, Jim Elliot 순교자의 사모와 딸인 Elizabeth Elliot, Valerie Elliot(공교선교사), 안찬호 선교사(케냐), 이준호 선교사(미주 GMP 대표), 김현철 선교사(도미니카 공화국) 등

다양한 선교사 또는 선교관련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가한다.

등록비는 8월 1일까지 20불이며, 8월 1일 이후는 30불이다. 저녁 집회는 누구나 등록없이 참석가능하다.

이메일 등록은 mission.ca@hotmail.com으로 하면 된다.

(임형진 기자)

**특별협찬**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특별후원** 기독교일보 아시아나항공

총 4회 출발: 4월 1일(4월 3일 검진), 4월 15일(4월 17일 검진), 5월 6일(5월 8일 검진), 5월 27일(5월 29일 검진)  
(고객이 원하시면 미리 출발해서서 검진일에 합류 가능. 검진 결과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짜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역시 효자다!

##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검진이 역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30년 이민생활에 자식 키우느라 이제껏 여행 한번 못가보신 우리 부모님. 지금도 우리를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국내 최고 아산병원과 미국내 1등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제껏 한번 못다한 효자노릇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교신문 '기독교일보' 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 의 名品 의료관광!**

-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아주관광에 파견된 전문의진이 무료 건강상담 및 개인별 맞춤 건강검진 프로그램 설계 수행  
■ 검진 다음날 결과를 확인하는 VIP용 특별서비스 제공  
■ 45명의 진료과별 전문의 상주로 이상소견 발생시 즉각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 건강의학과(외과), 3개 클리닉(안과, 내과, 피부과) 당일 진료서비스 제공  
- 외과: 소화기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알러지내과, 호흡기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 클리닉: 대식중추근골다, 남성의학클리닉, 금연클리닉  
■ 검진 내용 결과지+CD로 제공, 해피콜, 헬스케어클리닉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한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스페인 예보 매트릭스 랭킹서 국내병원 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병원 선정 (2009년 6월 17일)
- '2009 글로벌 고객만족 1위' 2년 연속 수상 서울아산병원**  
'환자중심의 관리' 실현,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 높은 평가의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에서도 한발 앞서 일련능률협력관심, 100명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 7월 26일)
-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2009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0대 암 중 4대 암 수술 실적 1위 및 6개 암 환자 수술 확대 시행 병원

**기독교일보 - 안심 프로그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남/여 \$3499

**정밀검사:** 흉부X선(전후, 측면), 중앙표지자간만, 대장암, 담도암, 심전도, 복부초음파, 심전도, 복부초음파, 혈액정밀검사

**공통검사:** [공통]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흉부CT, 복부골반CT, 뇌MRI, [남] 중앙표지자(전립선암), 전립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여] 중앙표지자(난소암), 유방X선, 액상자궁경부암, 골반초음파 or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흉추요추X선

**특별혜택**  
기독교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혜택  
1. 기독교일보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2.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제공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혜택  
1.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2.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됩니다(통상 1~3개월 소요)

**모두포함! 항공료+호텔(3박)+식사+공항 픽업 및 교통서비스+서울 시내투어**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www.usajour.com **아주관광** ASIAN FOUNDATION **아산재단**

**대표전화 (213)388-4000 •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아주항공부: (213) 387.9090 ▲동부(로렌하이츠, 리버사이드): (800) 956-3939 ▲토렌스(310) 217-0770 ▲샌디에고(800) 994-1233 ▲북경: 8610-6439-2397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 생등심	프라이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족발소
샤브 샤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가스/비프가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 혜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잃으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 반값으로 할수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 조경공사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213-909-5518

자재사역,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iMoving.com e-mail: skook@hyundaemoving.com

##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커튼 전문 업체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323) 752-1820**  
206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방기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드 냉방기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휘아, 삼성환

##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에어컨 1위

에어컨 수리 & 수평을 선취에 앞섰습니다. LCF 86310

323.525.0011 / 213.200.5388 / amazingaircon.com

# 빠짐없이 집계하기 위해 인구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아직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친절 한 인구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으로 커뮤니티가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 훈련 증진 등에 쓰일 정부지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원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인구조사원은 공식적인 ID를 가지고 있으며 기밀유지를 서약하였습니다.
- 인구조사 참여는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인구조사원에게 협조해 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5월 10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디지털 시대의 우리집 전화]  
**iTalkBB**

2009 시즌 아시아 여자 최초로 20-20 클럽 가입!  
- 추신수 플랜으로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는 연말에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

**30**일 환불보장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메이저 리그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드높이겠습니다.

*추신수*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

추신수 플랜  
**\$9.99** /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24.99/월] 행사기간: 5월 1일 - 5월 15일

홈런의 기쁨도 승리의 환희도 아이토크비비로 나눕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개통비 (\$29.99) 면제**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 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기존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 폰어댑터 무료 대여!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센터 |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과금 금액 기입시에는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할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재지정하는 경우 \$25.00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중인 상품금액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십시오.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합구서 대신 인터넷과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 카드 결과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Joins AMERICA** 아·이·토·크·비·비  
www.koreadaily.com **iTalkBB**

아이토크비비 공인사업 파트너  
직접 방문해서 체험 해 보세요!  
**집으로 가는길 비디오** T. 770-936-9636  
5953 Buford Hwy. (Ste 101) Doraville, GA 30340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16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5월 한달 방문 하시는분들에게 ALL THE REDS가 새겨진 멋진 T-SHIRTS를 드리며,  
저희 딜러에서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급 타월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입하신 분 중 한분을 추천하여 42" PLASMA TV를 드립니다.  
(경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회자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 5월 스페셜 세일 ☆☆☆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9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대량 확보로 가격및 모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85/3YR**  
(STK:053078)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T.D.O \$3,999/12K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57/3YR**  
(STK:101150)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9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07/3YR**  
(STK:028090)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T.D.O \$999/12K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44/3YR STK:946788

**\$144/3YR**  
(STK:946788)



### 5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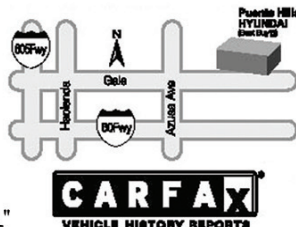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요일 9:00am~9:00pm  
▶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요일 7:30am~6:00pm  
▶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찰리 정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PH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